

지역 소식통

김제시, 전기차 보조금 지원

김제시(시장 정성주)가 깨끗한 대기 환경을 위해 미세먼지 저감사업의 일환으로 2024년 전기자동차(승용, 화물, 승합) 보급사업을 추진한다.

이번 상반기 보급사업 물량은 전기승용 150대, 전기화물 138대, 전기승합 1대로 총 289대다. 지원금액은 보급목표이행보조금을 포함해 1대당 최대 전기승용 1,390만원, 전기화물 2,137만원, 전기승합(중형) 8,500만원 범위 내에서 차종 등에 따라 차등 지원한다.

△전기택시의 경우 250만원, △차상위 이하 계층이 전기승용차 구매시 국비 지원액의 20%, △소상공인, 차상위 이하 계층이 전기화물차 구매시 국비 지원액의 30% △경유화물차 보유자가 폐차 후 전기화물차 구매 시 50만원 등 추가보조금을 지원하기도 한다.

신청자격은 구매지원 신청일 기준 김제시에 연속해 3개월 이상 주민등록상 주소를 둔 만 18세 이상 시민 또는 관내 사업장 소재지가 있는 법인 등이다.

/김제=곽노태 기자

지평선광활햇감자축제 4월 20일부터 2일간 개최

제14회 지평선광활햇감자축제가 오는 4월 20일과 21일 김제시 광활면 광활초등학교 일원에서 개최된다.

지평선광활햇감자축제추진위원회는 6일 지역주민들의 축제 참여도를 높이고 축제장을 찾은 방문객들에게 감자캐기체험 등을 통한 전국 최대 비닐하우스 감자 주산지인 광활의 이미지를 제고하기 위해 감자 출하 시기에 맞춰 4월 20일과 21일 이틀간 축제를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간척지 토양과 해풍을 품은 천혜의 조건에서 생산되는 광활감자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기 위해 지난 2007년부터 개최해온 햇감자축제는 내달 20일 개막식 행사를 시작으로 주민 누구나 참여 가능한 햇감자 요제와 방문객들을 위한 햇감자캐기체험 및 햇감자 맛점터 등의 알찬 프로그램과 다양한 이벤트를 준비하고 있다.

/김제=곽노태 기자

김제, 2024 투자유치 전략 수립

투자유치위원회서 기회발전특구 추진 등 논의

김제시(시장 정성주)가 지역 경제 성장을 위해 7대 전략을 세우고 본격적인 투자유치와 기업하기 좋은 도시 이미지 부각으로 눈길을 끌고 있다.

시는 지난 5일 시청 2층 상황실에서 전략적 투자유치 여건 조성을 위한 '2024년 김제시 투자유치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위원회는 △2024년 투자유치 추진 전략 보고, △2023년도 투자진흥기금 결산 및 2024년도 투자진흥기금 운용계획안을 심의하는 순으로 진행됐다.

이번 회의에서는 지난해 계속되는 경기침체 위기 속에서도 (주)석경에이티 등 7개 기업, 838억원의 투자 및 266개의 일자리 창출, 지평선산업단지 내 (주)HR E&I와 (주)두산의 첨단투자지구 선정(산업통상자원부, 김제시-주)HR E&I-미국 MEC사간 건설장비 1조 3,000억원의 수출업무협약과 6,500억원의 수출 본계약 성과 등을 높이 평가했다.

시는 지역 경제 성장 견인을 목표로 △지평선산업단지 활성화, △개발입지 활용 투자유치, △자유무역지역 및 노후 산업 활용 투자유치, △기회발전특구를 활용한 투자유치 극대화, △보조금 제도 개선을 통한 기업지원 효율화, 지평선산단 내 직장 공동어린아파트 및 체육공원 조성 등을 통한 '경주 여건 개선' 등의 세부 추진 방안이 올해 새롭게 추가되면서 눈길을 끌었다.



김제시는 지난 5일 시청 2층 상황실에서 전략적 투자유치 여건 조성을 위한 '2024년 김제시 투자유치위원회'를 개최했다.

했다. 특히 투자유치가 탄력을 받기 위해서는 백구 제2특장차단지와 지평선 제2산업단지의 기회발전특구 추진과 함께 미래산업 유치 등의 전략적 투자유치가 필요함을 인식하고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시는 지역 경제 성장 견인을 목표로 △지평선산업단지 활성화, △개발입지 활용 투자유치, △자유무역지역 및 노후 산업 활용 투자유치, △기회발전특구를 활용한 투자유치 극대화, △보조금 제도 개선을 통한 기업지원 효율화, △유관기관과 연계한 기업유치, △기업하기 좋은 도시 이미지 구축 등의 7대 전략을 내놓았다.

더불어 장기 미착공 부지에 대한 투자이행 촉구 및 적극적인 대체기업 유치를 통해 지평선산업단지 가동률을 74% 달성한다는 계획이다. 또, 보조금 지원 제도의 현실화를 통한 기업지원 효율화, 지평선산단 내 직장 공동어린아파트 및 체육공원 조성 등을 통한 '경주 여건 개선' 등의 세부 추진 방안이 올해 새롭게 추가되면서 눈길을 끌었다.

정성주 시장은 "위축된 국내의 경제 상황 속에서도 민관 협력으로 지난 한 해에도 꾸준한 투자유치 성과를 거뒀다"며, "위원들의 고견을 바탕으로 김제시가 앞으로도 더욱 기업하기 좋은 도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제=곽노태 기자

김제시, 출생아 수 · 합계출산율 모두 증가

전년대비 57명 늘어 도내 최고

김제시(시장 정성주)가 지난해 출생아 수 및 합계출산율이 모두 증가하며 전국구별 위기 극복을 위한 안간힘을 쓰고 있다.

6일 김제시에 따르면 통계청이 발표한 2023년 인구동향(출생사망통계)에서 지난해 전국의 출생아 수는 23만명으로 2022년 대비 6.9%(-1만9,186명), 전북특별자치도 출생아 수는 6,692명으로 2022년 대비 6.9%(-499명) 감소

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김제 출생아 수는 412명으로 전년대비 57명이 증가(증가율 16.1%)해 전북특별자치도 내 가장 높은 수치를 보였다.

또 2023년 가임여성 1인당 합계출산율은 전국 0.72명, 전북도 0.78명으로 2022년보다 각각 0.06명, 0.03명 감소했으나, 김제의 합계출산율은 1.37명으로 2022년 1.19명보다 0.18명이 더 증가해 도내 1위, 전국에서는 4위로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전국 합계출산율 최하위인 0.31명(부산광역시 중구)과는 1.06명의 큰 격차를 보였다.

합계출산율이 전국적으로 하향 중인 것과 달리 김제의 경우 2021년 0.91명에서 2022년 1.19명, 2023년 1.37명으로 3년 연속 상황극선을 그리고 있다. 이렇듯 합계출산율이 증가하는 원인으로 시가 추진하고 있는 출산 장려 정책, 다자녀 지원 정책 등 생애맞춤형 인구정책이 가시화되었다는 분석이다.

/김제=곽노태 기자

완주군, 개학기 맞아 학교 주변 불법광고물 집중 단속

완주군이 개학기를 맞아 초등학교 주변 불법 광고물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6일 완주군은 유치원, 초등학교, 어린이 보호구역 및 인근 도로구역 등에 설치된 불법 광고물을 집중 단속하고 있다고 밝혔다.

주요 정비 대상은 어린이보호구역, 교통환경보호구역 내에 소재한 유치원, 초등학교 주변이다.

통행량이 많은 상가, 유흥업소, 숙박 시설 주변의 도로와 가로변도 대상이다.

이외에도 연결부위가 취약해 안전사

고 우려되는 간판, 설치기간이 3년 이상 경과된 간판도 정비를 벌이고 있다.

군은 이달까지 집중 단속을 벌일 예정으로 허가·신고 없이 설치된 불법 광고물에 대해 업주 자율정비를 권장하지만, 보행자 안전이 우려되는 간판 및 유해 광고물은 즉시 정비하고 있다.

/완주=염재복 기자

완주군, 근로자 기숙사 임차비 지원

중소제조업체 대상... 기업당 최대 10명

완주군이 중소기업 근로자 기숙사 임차비 지원사업을 추진해 기업의 고용안정과 근로환경개선을 도모한다.

6일 완주군은 관내 중소기업 사업주가 아파트, 빌딩 등 공동주택을 임차해 근로자 기숙사로 제공하는 경우 임차비(월세) 일부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현재 군은 5개 업체를 선정해 16명에 대한 임차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약 42명을 추가 지원할 예정이다.

추가모집(공고)기간은 오는 11일부터 25일까지로 1인당 월 최대 20만 원 한도, 기업당 최대 10명 이내에서 가능하다.

임차비 지원기간은 선정 당월부

터 11월까지로,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후 근로자 주소 전입은 필수다.

매년 하절기에 실시하는 환경개선사업 수요조사에 참여할 경우, 우선 선정 대상이 된다.

자세한 내용은 완주군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완주군 미래전략담당관 기업지원팀(290-3783)으로 방문 접수하면 된다.

이정근 미래전략담당관은 "완주군에 입주한 기업들의 복지를 강화해 취업을 촉진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기업친화적인 다양한 정책을 발굴하고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완주=염재복 기자

김제시, 자립준비 청년에 김제 여행 지원

'비바씨(MVASEE)' 영감여행 통해 이달부터 매달 2회 이벤트

3월부터 매달 2회 자립준비청년들에게 김제시를 여행 할 수 있도록 숙소, 식대, 관광, 교통비 등 비용 일체를 지원하는 이벤트가 실시된다.

6일 김제시(시장 정성주)에 따르면 사회적기업 (주)명랑캠페인이 자립준비청년의 버킷리스트 실현을 위해 국내여행 지원에 나선다.

(주)명랑캠페인은 자립준비청년들의 휴식과 미래설계를 돕는 '2024 비바씨 영감여행'을 통해 3월부터 매달, 자립준비청년들이 2박 3일간 김제시를 여행할 수 있도록 여행비용 일체를 지원한다.

는 제목으로 '나에게 집중하는 시간(관광, 체험, 독서 등)'을 제공한다.

김제시에 위치한 '죽산포레스트'에 숙박하면서 지평선을 볼 수 있는 벽골제, 메타세쿼이아길 등 여행지를 관광하고, 오느른 책방에서 책을 구매해서 읽고 김제에서 가능한 다양한 체험을 하게 할 계획이다.

'비바씨 영감여행'에 참여를 원하는 자립준비청년은 '비바씨프렌즈'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신청 가능하다.

오호진(주)명랑캠페인 대표는 "2024년 자립준비청년의 버킷리스트 중 여행이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을 알게 됐다"며 "이번 여행을 통해 이들이 삶에 대해 깊이 고민하고, 미래에 대한 영감을 얻을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비바씨 캠페인의 컬처커뮤니티 '씨씨클럽'에는 전국 60여명 이상의 자립준비청년이 속해 있으며 매달 공연 관람을 통해 여가 생활을 즐기고 청년 및 어른들과 네트워크를 구축해 안정적인 자립을 돕고 있다. 또, (주)명랑캠페인은 '비바씨프렌즈' 제품 판매를 통해 마련된 수익금으로 자립준비청년의 주택청약통장 및 다답씨앗통장 62명을 후원 중이다.

/김제=곽노태 기자

전주매일 PDF 지면보기 서비스
www.jjmaeil.com에서

전주매일 아동학대 예방 캠페인

착한신고

112

"신고하는 당신이 영웅입니다"

아동학대 범죄를 알거나 의심만 되어도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하지 않은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지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

아동이나 학대행위자의 정보를 파악하지 못해도 신고는 가능하며, 가능한 많은 정보를 제공하도록 한다.

전화: 국번없이 112
방문: 관할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아동학대 행동적징후

- 어른과의 접촉회피
- 다른 아동이 울 때 공포를 나타냄
- 공격적이거나 위축된 극단적 행동
- 부모에 대한 두려움
- 집에 가는 것을 두려워함
- 위험에 대한 지속적 경계